

코로나 인플레이션이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

김지윤 (양명여고)

문제 제기

코로나19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침체되지 않은 국가가 없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연결이 아주 활발한 21세기이기에 이 피해는 한 국가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끈 인플레이션의 개념, 원인을 알아보고 이 문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을 강조하며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인지한다. 또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더더욱 함께 극복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국제학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그 중의 경제학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 관련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본론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이다¹⁾.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물가가 상승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출입국 금지 등의 제한이 생겼고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부문의 산업에 타격을 주며 생산성이 하락했으며 이런 현상이 전체적인 공급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사례를 살펴보면,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섬유 의류 공장 중 35%가 문을 닫았고, 코로나가 특히 심했던 남부 지역은 공급망 90%가 마비되었다²⁾. 이처럼 전염병에 의해 생산이 중단되고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였다.

당장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국가 내에서 국채를 감안하며 경기부양책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통화를 풀었다. 이에 따라 화폐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니 물가가 상승하였다.

요약하자면, 코로나로 인해 여행, 무역, 금융, 디지털, 데이터 측면³⁾에서 교류가 약화되고 생산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공급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각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시중의 화폐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하였다.

1) “인플레이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

2) 이태동기자(2021) ”가난한 나라는 못맞는 백신, 인플레 재앙 시작된다-백신 불평등, 세계경제 부메랑으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0/22/HCKMO2Y65NARHJMMFL5TDI7QZM/>

3) 김민지(2021)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10p <국토연구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물가와 함께 상승한다. 이로 인해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계층은 부유해지고 실물자산보다 화폐를 주로 소지하고 있는 계층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빈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 각국에게 미친 영향과 이어진다. 계층 간의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극화로 넓혀 볼 수 있다. 물론 선진국이라 해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크게 미친 문제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비교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상대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백신 불평등

조선일보의 한 기사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2021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의 접종률이 70.4% 대 2.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쉽게 말해 고소득 국가는 10명 중 7명이 최소 1번의 백신을 맞았으나, 저소득 국가 국민은 1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이 백신 보급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해상 물류 이동에 영향을 끼쳤다. 화물선 선원 대다수가 개발도상국 출신인데 그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 보니 선원들의 격리나 출입국 금지로 물류 운반에 제한을 받으면 해당 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영국 BBC는 “전 세계 선원 140만 명 중 백신을 접종받은 비율이 31%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 상품의 90%가 바다로 운반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세계 무역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해상운송에 대한 현 상황을 언급했다⁶⁾.

변이바이러스 출현에도 영향을 끼쳤다. 21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즈 등에서 이를 국가와 지역 간의 백신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도했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접종률이 7%⁷⁾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의 백신 접종률은 66%, 미국은 58%⁸⁾이다. 이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더 강력한 전파와 타격을 주므로 또 다시 생산의 감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물가 상승

4) “인플레이션”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idx=146>

5) 이태동기자(2021) “가난한 나라는 못맞는 백신, 인플레 재앙 시작된다-백신 불평등, 세계경제 부메랑으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0/22/HCKMO2Y65NARHJMMFL5TDI7QZM/>

6) 이태동기자(2021) “가난한 나라는 못맞는 백신, 인플레 재앙 시작된다-백신 불평등, 세계경제 부메랑으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0/22/HCKMO2Y65NARHJMMFL5TDI7QZM/>

7) 신정연 기자(2021) “‘오미크론’ 등장은 백신불평등 탓?..”접종률 낮은 곳 변이 계속 나와” < MBC뉴스 >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318819_34880.html

8) 신정연 기자(2021) “‘오미크론’ 등장은 백신불평등 탓?..”접종률 낮은 곳 변이 계속 나와” < MBC뉴스 >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318819_34880.html

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의 문제가 더 장기화된다고 볼 수 있다.

-자국 우선주의

코로나로 인해 국경 폐쇄, 백신 확보 경쟁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가속화되고있다⁹⁾. 자국 우선주의란,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이념 혹은 정책을 말한다¹⁰⁾. 이는 이전부터 언급되었던 문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해졌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은 기존보다 더 비싸게 수출되는 물품에 부담을 느낀다. 이는 세계 국가들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국가는 똑같이 자국의 수출품 값을 늘리며 또 다른 국가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개발도상국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고 해당 기술을 보유한 국가(주로 선진국)와 아닌 국가 간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석유 중심 수출국의 타격

국제통화기금은 다양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석유 수출 혹은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일수록 더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 지역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지목했다¹¹⁾.

또 다른 사례로 베네수엘라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수출에 96%에 해당하는 것은 석유이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 제재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감소하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좋지 못한 재정 운영으로 나랏돈이 부족해져 화폐를 엄청 찍어냈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¹²⁾. 이로 인하여 그들의 화폐의 가치는 매우 하락했고 물가상승률은 2,500%를 넘겼다¹³⁾. 시민들은 화폐를 활용하여 종이접기를 하거나 바닥에 그냥 놓아두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¹⁴⁾을 진행하였으나 화폐의 가치가 너무 들쭉날쭉하자 미국화폐를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석유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백신불평등, 자국 우선주의, 석유 중심 수출국의 타격 등과 같은 문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며 본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자본을 써야하는 물품을 교류하였으나 선진국이 이 연결에서 벗어나거나 제한을 두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개발도상국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힘든 시점에 함께 극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9) 김민지(2021)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10p <국토연구원>

10) “자국민 우선주의” <위키백과>

11) 전승철(2020)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2020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9p <제주평화연구원>

12) 임현우 기자(2021) “물가 지옥’ 베네수엘라, 화폐에서 ‘0’ 여섯 개 빼는 이유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107057385i>

13) (2021) “전 세계 인플레이션 비상.. 개발도상국 경제 직격탄” < KBS news[지구촌in]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3669>

14) 임현우 기자(2021) “물가 지옥’ 베네수엘라, 화폐에서 ‘0’ 여섯 개 빼는 이유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107057385i>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국제기구와 세계국가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제개발협회에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모금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⁵⁾.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산업생산이 증가할 거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¹⁶⁾.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철회하기로 발표했다¹⁷⁾.

-IBRD는 코로나 취약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215개의 국가들이 사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¹⁸⁾

-아시아개발은행은 보건, 경제 분야에 집중한 기술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을 위해 맞춤형 금융 패키지를 지원했다.¹⁹⁾

위의 사례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각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은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아직 멀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코로나 전염으로 인한 피해와 시선부담이 심하니 백신 보급을 도와주거나 방역 관련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전자기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품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의 부품이라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전자기기 자체에 영향을 끼친다. 부품 하나로 인해 전자기기가 아예 고장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배터리가 빨리 닳는 등의 문제로 기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세계도 그렇다고 본다. 세계의 일원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국가 간의 관심을 갖고,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결론

위와 같은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를 1년 전과 비교해보면 8.9% 올랐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치이다²⁰⁾. 또한 IMF가 내놓은 '재

15) 임종명 기자(2021) "세계은행 "선진국-개도국 격차 줄여야...1000억 달러 모금"<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09610&cID=10101&pID=10100

16) (2021) "IMF 총재 "인플레 잡으려면 세계가 백신 맞아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1/1041837/>

17) 임종명 기자(2021) "미국 따라 각국 경기부양책 잇따라 철회...인플레 해결엔 고심"<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5_0001640772

18) 김민지(2021)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17p <국토연구원>

19) 김민지(2021)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25p <국토연구원>

20) 김익환 기자(2021) "인플레이션 문턱인가...생산자물가 13년래 최대폭 상승"<한경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90888i>

정 점검 보고서'에서 IMF의 경고 대상 1순위 국가가 한국이라 밝혔는데, 앞으로 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²¹⁾. 이를 경기부양책 때문으로 보는데 당장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경기부양책으로 늘어나는 국채가 조금은 우려가 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교육의 질, 환경, 경험을 쌓기에 제한된 상황들로 청소년들은 자기 계발을 하고 경험을 쌓는 데에 비교적 한계가 있다.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는 와중에 자기 계발이 비교적 제한된 세대의 청소년들이 이후에 그 국채를 갚아야하기 때문에 후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 본다. 그리고 이는 세금을 통해서 걷게 될 텐데 만약 그때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지 않다면 쌓인 국채를 갚아야 하는 시기가 장기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이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가 간의 적극적인 지원과 완화정책을 펼치면 경기재정에 대해 부담이 덜 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유행이 지속되며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나 개발도상국들의 상황도 놓치지 않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한다.

참고문헌

- 인플레이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
 이태동 기자(2021) "가난한 나라는 못맞는 백신, 인플레 재앙 시작된다-백신 불평등, 세계경제 부메랑으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0/22/HCKMO2Y65NARHJMMFL5TDI7QZM/>
 김민지(2021)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10p <국토연구원>
 "인플레이션"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idx=146>
 신정연 기자(2021) "'오미크론' 등장은 백신불평등 탓?.."접종률 낮은 곳 변이 계속 나와" <MBC뉴스>
 >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318819_34880.html
 "자국민 우선주의" <위키백과>
 전승철(2020)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2020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9p <제주평화연구원>
 임현우 기자(2021) "물가 지옥' 베네수엘라, 화폐에서 '0' 여섯 개 빼는 이유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107057385i>
 (2021) "전 세계 인플레이션 비상.. 개발도상국 경제 직격탄" < KBS news[지구촌in]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3669>
 임종명 기자(2021) "세계은행 "선진국-개도국 격차 줄여야...1000억 달러 모금""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09610&cID=10101&pID=10100
 (2021) "IMF 총재 "인플레 잡으려면 세계가 백신 맞아"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1/1041837/>
 임종명 기자(2021) "미국 따라 각국 경기부양책 잇따라 철회...인플레 해결엔 고심"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5_0001640772
 김익환 기자(2021) "인플레이션 문턱인가...생산자물가 13년래 최대폭 상승" <한경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90888i>
 반진욱, 김경빈 기자(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경제 살아날까...매경 아웃룩 2022 대예측" <매일경제> <https://news.zum.com/articles/71995410>

21) 반진욱, 김경빈 기자(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경제 살아날까...매경 아웃룩 2022 대예측" <매일경제> <https://news.zum.com/articles/71995410>